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세!
2023
★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광명성절 뜻깊게 경축
조선
주체112
(2023)
3
(801)

주체45(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CONTENTS

특별소식

소 식

오늘의 조선

체 육

자 연

표지, 뒤표지: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편집: 신재철, 김정철, 김규성, 최일선, 조철주, 승룡

16

136

142

156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확대회의가 2월 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리병철동지, 리영길동지와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 군종사령관들과 군단 및 주요부대 지휘관들, 국방성과 기타 무력기관의 지휘관들, 국방과학연구부문 지도간부들과 군수공업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간부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확대회의에서는 2023년도 주요군사정치과업과 군건설방향에 대한 전망적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군사정치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련의 실무적과업들이 연구토의되고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 전체 무장력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중임을 깊이 명심하고 사회주의위업완성을 위한 장엄한 려정에서 우리 인민이 전취한 력사적승리들을 더욱 공고히 하며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사에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방대한 투쟁과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억척같이 떠받들고 힘있게 개척해나가는데서 백승의 위훈을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당백》구호를 제시하신 60돐이 되는 력사적인 날에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시여 강군건설의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하시고 공화국무력의 혁명적인 군사정치활동방향을 천명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인민군 지휘관들과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의 군사정책을 관철해나가는 길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중요한 책무를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군절을 맞으며 인민군장령들의 숙소를 축하방문하시고 기념연회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을 맞으며 2월 7일 인민군장령들의 숙소를 축하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가장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영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기념연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연회에는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을 비롯한 장령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연회장에 들어서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광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군절을 맞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을 위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창군의 함성이 터져올랐던 그날로부터 영광스러운 전통과 빛나는 승리, 찬연한 영예의 서사시를 수놓아온 인민군대의 자랑찬 력사를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백전백승하는 조선혁명의 억센 숨결을 무적의 군력과 값비싼 희생으로 지켜주고 우리 국가의 불패성과 강대성을 떠받들어온 공화국무력의 전체 장병들에게 숭고한 경의와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1948 2023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무장력, 계급의 전위인 우리 군대가 철두철미 혁명의 제1세들이 총대에 재웠던 붉은 넋과 숭고한 사명, 견결한 혁명정신과 결사항전의 투지를 변함없이 계승하여 우리 군대특유의 불가항력으로 강대한 조국과 인민의 권위와 위대함을 빛나게 수호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열정에 넘친 연설에 접한 군장령들은 인민군대 특유의 성스러운 전통을 굳건히 이어갈 신념의 맹세를 담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였다.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미래를 위한 군력강화의 길에서 뜻과 정, 생사를 같이하는 위대한 령장과 무적강군의 핵심골간들의 혈연적뉴대를 전하는 감동깊은 화폭들이 연회장에 숭엄히 펼쳐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기념연회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월 7일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기념연회에 참석하시여 격동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뜻깊은 이 자리에 모인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지휘관들인 장령동무들!

오늘은 우리 군대의 창건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창군의 함성을 터쳐올리던 그날로부터 2만 7,395일 그 장구한 투쟁행로에 영광스러운 전통과 빛나는 승리, 찬연한 영예의 서사시를 수놓아온 인민군대의 자랑찬 년륜을 되그려보는 이 시각 백전백승하는 조선혁명의 억센 숨결을 지켜주고 우리 국가의 불패성과 강대성을 떠받들기 위해 헌신한 전세대 인민군장병들의 못잊을 이름들과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영광의 이밤 이 순간도 어머니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 전선과 국경, 각 전투초소들과 사회주의건설장들에 굳건히 서있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는 우리 당과 정부의 위임을 받아 간고한 혁명무력투쟁사에 불멸할 승리의 전통의 시원을 마련해준 항일혁명선렬들과 인민군렬사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과 이제는 우리곁을 떠나간 전세대 군지휘관동지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각급 지휘관, 장령동지들을 통하여 인민군대와 공화국무력의 전체 장병동지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전하는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강군건설로선과 국방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성원해주며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을 조국보위에 내세우고 나라의 방위력강화를 위해 성심을 바쳐가고있는 전체 인민들과 군인가족들에게 뜨거운 축원과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삼가 드립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와 같은 영웅적인 군대, 애국적인 군대, 자기 위업에 충직한 군대는 세상에 없으며 간고한 도전속에서도 끄떡없이 우리 혁명을 보위하기 위해 바쳐가는 그 헌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언제나 고생속에 수고많은 우리 인민군장병들이 건군절 오늘만이라도 전체 인민의 축복속에 응당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기의 명절을 뜻깊게 쇠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장령동무들, 인민군장병들,

류례없이 간고한 우리 혁명이 무슨 힘으로 전진하며 우리 국가가 무엇으로 불패한가, 우리의 리상,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건설되는가.

이 모든것에 대한 가장 진실한 대답, 가장 공정한 력사의 평가가 바로 우리 군대의 75년사의 갈피갈피에 새겨져있습니다.

풍파사나운 력사속에서 우리 혁명위업이 어떻게 지켜지고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이 어떻게 보위되였으며 우리의 국가가 어떻게 영예의 절정에서 나붓겨왔는가를 돌이켜볼수록 승리를 위해 흘린 우리 군장병들의 고귀한 피와 무수한 위훈을 소중히 안아보게 됩니다.

창군 첫시기부터 우리 군대는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자기 본연의 사명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충실하기 위한 피어린 장정을 시작한 이것은 우리의 건군사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투쟁사와 뗄수 없는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 군대의 75년사를 가장 위대하게 기록할수 있게 한 근본요인으로 되였습니다.

존엄과 명예도 강자에게만 있고 혁명위업의 정당성도 이겨야만 증명되며 자위가 있어야 자주도 자립도 있다는 진리를 피어린 승리로써 새기며 정의로운 힘의 력사가 이 땅에 굽이쳐갔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미래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절실한것을 모두 지켜주고 이루어주는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 정권의 군대, 계급의 군대, 또한 고생을 남먼저 떠맡는 군대, 희생을 불사하는 군대, 이것이 우리 인민군대가 피와 목숨으로 쟁취하였고 세기와 세대를 이어 지켜가야 할 고귀한 명함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무엇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당당히 자부할수 있는것은 혁명적당군의 바통, 충성의 력사와 전통이 련면히 계승되고있는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군대가 조선로동당의 무장력, 계급의 전위로서 무한한 힘을 떨치고있는것은 철두철미 혁명무력의 1세들이 총대에 재웠던 붉은 넋과 숭고한 사명, 견결한 혁명정신과 결사항전의 투지가 5세, 6세에 이른 오늘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우리 인민군대의 75년사의 최대의 영광은 세월의 흐름에도, 력사의 광풍속에서도 억세고 줄기차게 이어지는 위대한 계승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혁명무력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새세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준엄한 혁명전쟁이나 혁명의 간고한 시련기는 겪어보지 못하였지만 혁명이 피를 요구하면 피를 바치고 땀을 요구하면 땀을 바치고 목숨을 내대야 한다면 둘도 없는 생을 한점 아쉬움없이 바치는 우리 인민군대특유의 절대적충실성, 전세대들의 특질을 그대로 유전받았다는것을 나는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적들과 직접 총구를 맞대고있는 최전방전투진지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승리와 기적이 이룩되는 이 나라의 모든 곳에는 기세높이 싸우는 우리 군대가 있었고 그들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이 어린 붉은 군기들이 기세차게 휘날렸습니다.

우리 군대가 국권수호, 인민사수, 거창한 창조의 전역들에서 정신육체적한계를 초월하는 의지의 힘으로 불사신같이 투쟁하는 모습들을 볼 때면 항상 머리가 절로 숙어집니다.

당과 운명을 함께 하고 당의 명령을 관철하는 그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고 간주하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우리 군대이기에 나는 나라가 어려울 때면 언제나 우리 군대부터 찾았고 우리 군대에게 더 큰 투쟁과업을 맡기였으며 우리 군대는 언제나와 같이 당의 부름에 주춤을 몰랐습니다.

이런 훌륭한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사령관이라는 무상의 영광을 느끼며 우리 군대와 생사운명을 함께 할 결심을 다질 때면 나는 무한한 행복에 빠지군 합니다.

초창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많은것이 변하고 우리 군대의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준엄한 나날에나 평화로운 나날에나 항상 혁명의 전위에 굳건히 서서 그 누구도 감당해낼수 없는 중하를 억세게 떠메고 나가는 그 충성스러운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개척도 위대했지만 계승 또한 위대하기에 우리 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라는 시대와 력사의 값높은 부름을 쟁취하게 되였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에서 풍기는 도고함과 위엄, 강인함과 억세임은 자기의 생이 가장 위대한 성업에 바쳐지며 자기의 총대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위업에 복무한다는 특별한 자부심, 강한 자존심에서부터 나오는 우리 군대고유의 풍격이며 당중앙이 맡겨준 임무를 다하기 전에는 꺾일수도 쓰러질수도 없다는 비상한 책임감, 초인간적인 의지력이 발산하는 우리 군대특유의 불가항력의 과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광풍속에서 더욱 억세여지고 시련속에서 더욱 강대해지는 우리 국가의 모습은 싸우는 군대의 모습에 비껴있고 우리 인민이 올라선 존엄의 절정에서는 영웅적인 군장병들의 이름이 빛나고있다고 하시면서 지구상에는 수백개의 나라가 있고 오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군대도 적지 않지만 자기 발전의 전행정에 걸쳐 당과 조국, 인민과 생사를 같이하며 그의 권위와 위대함을 더해주고 그의 높은 명예와 창창한 앞날을 지켜주는 군대는 오직 조선인민군밖에 없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진정한 륭성과 발전을 위하여, 후손만대를 위하여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며 마침내 위대하고 절대적인 힘을 키웠다고 선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는 언제나와 같이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시련을 맞받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나는 동무들이 영광스러운 군기에 새겨진 글발그대로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위함에 목숨까지 다 바쳐 언제나와 같이 용감해주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언제나 동무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할것을 확언하면서 동무들 그리고 우리 인민군대앞에 혁명의 전위를 부탁합니다.

모두가 건강해서 우리 군인대중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지휘관들이 되여주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인민군관병들을 동무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모두가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더 많은 일을 해나갑시다.

인민군대가 기울인 노력의 대가만큼 인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나라가 평안해지기를 가슴에 손을 얹고 기원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군대 장령동무들과 전군의 지휘관, 병사들의 건강을 위하여, 인민군대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그 명예의 영원함을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백전백승의 영웅군대 조선인민군 만세!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이 2월 8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되였다.

건군절기념열병식이 거행되게 될 **김일성**광장과 그와 잇닿은 대통로들에는 강군의 위용넘친 혁명무력의 각 군종, 병종대오들과 첨단무장장비들이 엄숙히 정렬해 있었다.

항공륙전병들이 난도높은 집체강하기교로 활공하면서 건군절의 밤하늘에 환희로운 불보라를 펼치고 공화국기와 조선로동당기를 거폭으로 휘날리며 날아내렸다.

이어 혁명군가의 기백넘친 선률로 광장을 진감하며 종합군악대의 례식이 진행되였다.

군악대원들이 변화무쌍한 률동대형으로 인민군대의 력사와 전통, 최대의 사명과 필승불패성을 상징하는 오각별과 《2. 8》, 《75》 등의 수자들에 이어 당마크와 《강군》이라는 글발을 광장바닥에 련이어 새기였으며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능란하고 재치있는 무기기교를 펼치였다.

조국의 령토와 령해, 령공을 철옹성같이 지켜선 혁명무력의 정규화적면모를 과시하며 열병부대들이 영광의 군기를 앞세우고 대열병관현악에 맞추어 위풍당당히 광장으로 입장하였다.

조선인민군 각급 련합부대 군기입장의식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리설주녀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영접의식이 엄숙히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와 공화국 무력의 주요부대 군기들을 사열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국방성 지휘관들과 대련합부대장들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정중히 영접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력강화의 전초선과 조국의 부강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한 격전장들에서 혁명군대의 전투적기상을 떨쳐가고있는 군지휘관들을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열병대원들과 관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 소년단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1948

난도높은 집체강하기교로 활공하면서 찬연한 광채를 뿌리는 국기와 당기를 거폭으로 휘날리며 날아내리는 항공륙전병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영길동지와 무력기관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동지, 김재룡동지, 전현철동지가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석에 자리잡았다.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경축행사참가자들과 특별대표로 초청된 원군미풍열성자들이 초대석에 자리잡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게양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한생이 어리여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세기의 창공높이 휘날려가시는 주체조선의 국기에 열병식 참가자들과 전군의 장병들, 온 나라 인민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노래 《빛나는 조국》의 장중한 주악이 울리며 21발의 례포가 발사되였다.

이어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원수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강순남동지가 열병부대들이 열병식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리병철동지가 열병부대들을 점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리병철원수가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준비되였음을 정중히 보고올리였다.

드디여 공화국의 백전백승사를 빛내여온 혁명강군의 장엄한 열병행진이 개시되였다.

열병대오의 선두에서 명예기병종대가 혁명의 수령이 개척한 한길따라 변함없는 한보폭으로 줄기차게 달음쳐온 인민군대의 본연의 자세, 빨찌산정신을 굳건히 이어가는 계승의 력사를 보여주며 호기찬 말발굽소리높이 위엄을 돋구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창조하여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준 성스러운 전통을 보여주는 항일의 7련대상징종대가 《반일인민유격대》글발을 새긴 혁명무력의 첫 군기를 높이 들고 용진해갔다.

혁명무력투쟁사에 불멸할 승리전통의 시원을 마련해준 항일혁명선렬들의 숭엄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열병대오의 전렬에 군기와 더불어 빛났다.

준엄한 포화속에서 최고사령부를 옹위하여 결사의 방탄벽이 되였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친위중대상징종대가 친위중대출신 로혁명가들의 초상사진을 대오앞에 세우고 광장에 들어섰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바뀌여도 위대한 수령을 따라 가장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바친 전사들의 삶은 당과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신하며 관중들은 건군사에 아로새겨진 충신들의 모습에 격정어린 시선을 모았다.

전체 열병부대들과 조선인민군 각급 련합부대 군기들의 경의를 받으며 명예위병들이 받쳐든 람홍색국기가 게양대로 향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사에 그 이름 빛나는 제1국방사단, 제2경보병사단, 제3독립보병려단, 제4보병사단 상징종대들도 부대연혁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지휘관들의 초상사진을 들고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타승한 근위병들의 멸적의 기개를 떨치며 나아갔다.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전통과 계승성을 뚜렷이 보여준 상징종대들의 뒤를 이어 당중앙위원회호위처종대, 국무위원회 경위국종대, 호위국종대, 호위사령부종대가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갔다.

정예부대들의 군기를 휘날리며 조국수호의 전초선에서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해나가고있는 군집단들이 장검을 비껴든 지휘관들을 위시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짚었다.

해군, 공군종대와 전략군종대, 특수작전군종대들도 당중앙이 출전명령만 내리면 질풍노도처나가 적들을 섬멸하고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릴 전투정신으로 충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히 울려퍼지는 속에 최강의 혁명무력의 전투적 기상이 떠올리는 영광의 국기가 서서히 게양되였다.

2023

항일의 7련대상징종대, 조국해방전쟁시기 친위중대상징종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사에 그 이름 빛나는 제1국방사단, 제2경보병사단, 제3독립보병사단, 제4보병사단 상징종대들이 혁명무력투쟁사에 불멸할 승리전통의 시원을 마련해준 항일혁명선렬들과 친위중대출신 로혁명가들,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지휘관들의 초상사진들을 들고나갔다.

1948
2023

김정은동지께서는 준엄한 나날에나 평화로운 나날에나 항상 혁명의 전위, 계급의 전위에 굳건히 서서 조선혁명의 혈통,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위업을 결사보위해나가는 근위병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수도 평양의 방어임무를 맡은 군단들과 조국의 해안과 국경연선, 후방의 종심을 굳건히 지켜가는 군단종대들이 기운차게 용진해갔다.

최고사령부가 가리키는 진격의 화살표따라 작전지대들을 단숨에 깔고앉을 무쇠타격집단인 땅크장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종대들과 정찰총국종대에 이어 제191지휘정보려단종대를 비롯한 전문병, 근무병종대들이 발구름을 높이였다.

제1기동병원종대가 광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은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주체군사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종대, 나라의 최고급군사지휘관양성의 중심기지인 **김정일**군정대학종대, 인민군대정치일군양성의 원종장인 **김일성**정치대학종대를 비롯한 각급 군사학교종대들에서 당의 강군화위업실현에 이바지할 맹세를 담아 터치는 함성이 경축광장을 진감하였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오중흡7련대

사회주의조국의 영원한 찬가인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울려퍼지는 속에 혁명학원학생들이 도보종대의 마감을 장식하며 전진해갔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렬들이 물려준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이어 우리 혁명무력과 조국의 밝은 미래를 떠받들어나갈 결의를 안고 보무당당하게 행진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여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건군절경축광장의 밤하늘을 진감하며 주체적공군무력의 열병비행이 시작되였다.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온 인민공군의 위훈, 강군의 력사를 2월의 하늘가에 아로새기듯 오각별과 수자 《75》를 형상한 비행종대가 눈부신 축포탄을 쏘아올리며 광장상공을 통과하였다.

1948

건군의 초행길을 세계적인 군사강국건설의 활로로 이어온 조선로동당의 자위적국방건설사를 보여주며 기계화종대들의 열병진군이 시작되였다.

중기를 실은 마차종대를 선두로 모터찌클종대, 반전차포종대, 평사포종대, 땅크종대들을 비롯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기계화상징종대들이 광장에 들어섰다.

기계화상징종대들에 이어 공화국 국방력의 선진성과 현대성, 강대성을 과시하며 조선인민군의 주력무장장비들이 등장하였다.

주력땅크종대가 멸적의 굉음을 높이 울리고 그 뒤로 포병무력이 강철포신을 추켜들고 광장을 누벼나갔다.

전술미싸일종대와 장거리순항미싸일종대들이 광장으로 진입하였다.

강위력한 전쟁억제력, 반격능력을 과시하며 도도히 굽이쳐가는 전술핵운용부대종대들의 진군은 위엄으로 충만되고 무비의 기세로 충천하였다.

급상승비행기교를 펼쳐보이는 편대

공화국국방력의 변혁적인 발전상과 핵공격능력을 과시하며 대륙간탄도미싸일종대들이 등장하였다.

열병식이 끝나자 또다시 황홀한 축포가 터져올라 건군절의 밤하늘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은 천하제일의 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추켜들고 나아가는 일당백혁명강군의 전투적기상과 주체혁명위업의 끝없이 양양한 전도를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한 일대 정치적사변으로 되였다.

261
253
254

공화국국방력의 변혁적인 발전상과 우리 국가의 최대의 핵공격능력을 과시하는

대륙간탄도미싸일종대들

용감한 위용을 시위하며 진군하는
공화국전략무력의 거대한 실체들

화보
【특별소식】
인민공화국만세!
2023
기계화종대
백두의혁명정신
573

당중앙의 령도에 절대
종하는 혁명적 장군으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1948

일심
백두의혁명정신
새로운승리를향하여
1948-2023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각급 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경축행사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군절경축행사에 특별대표로 초대된 원군미풍열성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3년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전면적부흥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무진한 저력과 휘황한 래일에 대한 인민의 확신을 백배해주며 2023년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사업인 화성지구 2단계 건설착공식이 2월 15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내각부총리, 성, 중앙기관,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하였다.

무력기관의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착공식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가 착공식연설을 하였다.

그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사회주의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해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중대사항이며 우리 당이 구상하고 추진하고있는 기본과업들중 첫째가는 목표이라고 하면서 올해 수행하여야 할 평양시 1만세대건설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인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안겨줄 웅대한 계획실행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주시며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발파단추를 몸소 누르시였다.

순간 건설장전역을 뒤흔드는 장쾌한 뢰성에 이어 축포탄들이 터져오르고 참가자들이 웨치는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의 잠재력과 인민의 창조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치기 위한 장엄한 대건설투쟁에 충천한 기세로 또다시 총궐기해나선 전체 건설자들에게 손저어주시며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동온실농장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여 몸소 착공의 첫삽을 뜨시였다

평양시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온실농장건설이 시작되였다.

인민의 복리를 위함에 천사만사를 철저히 복종지향시켜나가고있는 당중앙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기 위한 발전방략을 책정한 력사적인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강동지구에 대온실농장을 일떠세우는것을 중요건설과제로 결정하고 인민군장병들에게 또다시 영예로운 전투임무를 하달하였다.

강동온실농장건설착공식이 2월 15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영길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동지, 강동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하였다.

무력기관의 주요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참가하였다.

착공식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용원동지가 착공식연설을 하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완공된 련포온실농장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건설할 온실농장은 련포온실농장보다 지능화, 집약화수준이 더 높은, 한세대 더 발전된 온실농장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에 새로 일떠세울 온실농장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착공식에서는 결의토론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동온실농장건설착공을 기념하여 몸소 첫삽을 뜨시였다.

착공을 알리는 발파의 뢰성이 대지를 뒤흔들고 강동지구에 일어날 자랑찬 변혁상을 예고하며 오색령롱한 축포탄들이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에 참가한 부대 주요지휘관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부대, 구분대들을 창조와 위훈에로 잘 이끌라고, 모든 장병들이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길에서는 오직 전진과 창조만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의지를 가장 충실하게, 확실하게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부대의 명예를 걸고 부과된 과업을 결사관철함으로써 당의 믿음에 꼭 보답하라고 전투적으로 고무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충성과 애국의 군기를 높이 휘날리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의 전위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갈 열의에 넘쳐있는 미더운 군인건설자들에게 오래도록 따뜻이 손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여 격동적인 연설로 청년전위들을 고무격려해주시고 착공의 첫삽을 뜨시였다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이 2월 25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착공식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이 땅우에 청년중시의 숭고한 새 경륜을 펼쳐가시며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투쟁의 선봉대, 돌격대로,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전도양양한 젊은 주력부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고 정과 사랑을 다해 키워주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러 열광넘친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내각부총리, 당중앙위원회 부장,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청년동맹일군들, 시안의 청년들이 착공식에 참가하였다.

착공식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착공식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용감성과 위훈으로 빛나는 우리 나라 청년운동사에 또 하나의 긍지높은 페지를 아로새기게 될 현대적인 새 거리건설의 의의깊은 착공을 청년탄원자들과 함께 선포하게 된 기쁨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청춘기념비를 세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불멸할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112 (2023) 년 2월 25일

년 2월 25일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의 돌격전구마다에 파급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우리 시대 사회주의청년전위들이 지닌 불굴의 특질과 투쟁기개의 상징으로, 고난을 박차고 무쌍하게 일떠서는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의 한 부분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위대한 정신을 더욱 승화시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행정에서 청년들의 애국열의를 다시금 높이 발휘할수 있는 새 활무대, 거창한 청년판을 펼쳐놓기로 한 우리 당의 결심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시대의 부름과 인민의 기대에 영웅적투쟁으로 보답하여 수도의 새 거리를 훌륭히 건설할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청년의 값높은 명예를 위하여,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의 수도 평양을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들에 대한 한없는 믿음과 사랑이 구절구절 넘치는 격동적인 연설을 마치시자 꿈만 같은 영광과 행복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열광의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기발을 지휘성원들에게 수여하시였다.

전체 청년건설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부름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온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이어 불가능을 모르는 조선청년의 기상과 본때로 총돌격하여 수도 평양에 인민의 리상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우고 아버지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릴 엄숙한 결의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 건설착공을 기념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몸소 첫삽을 뜨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발파단추를 누르시였다.

착공을 알리는 발파폭음이 장쾌하게 울려퍼지는 속에 조선청년들이 걸어갈 영용한 투쟁과 전진의 앞길에 뿌려지는 시대의 축복인양 환희로운 축포탄들이 2월의 하늘가에 날아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을 더없는 영예로, 자랑으로 간직하고 당의 구상실현을 위함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우리 청년들의 정신상태와 기세가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뜨거운 청춘의 혈기와 열렬한 애국충심으로 우리 위업을 옹위하는 신념의 억척성새를 높이 쌓아올린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청년들이 오늘의 장엄한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골간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해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수도 평양을 위하여!》라는 신성한 의무와 시대의 부름을 깊이 간직하고 웅장화려한 새 거리, 부흥강국의 변혁적실체를 보란듯이 일떠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미더운 청년전위들을 뜨겁게 고무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2월명절을 기념하여 진행된 체육경기를 관람하시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기념하여 2월 17일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사이의 체육경기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열광적으로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내각 성원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경기를 관람하였다.

국방성 지휘성원들과 장병들, 군사교육단위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보았다.

먼저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간의 축구경기가 진행되였다.

경기휴식시간에 평양항공구락부 모형항공기선수들이 각이한 모형항공기들의 난도높은 기교비행을 펼쳐놓아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선수들모두가 지칠줄 모르는 강한 승부심으로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며 멋진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이는 속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득점기회들이 마련될 때마다 관람석에서는 기쁨과 아쉬움이 엇갈린 호성이 터져나오고 응원열기는 한층 고조되였다.

경기에서는 국방성팀이 내각팀을 3:1로 이겼다.

축구경기에 이어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사이의 바줄당기기경기가 진행되였다.

바줄당기기경기에서도 국방성팀이 내각팀을 2:0으로 이겼다.

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사랑하는 자제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쁨과 희열에 넘쳐 뜻깊은 2월의 봄명절을 기념한 오늘의 이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며 올해를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광명성절 뜻깊게 경축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로의 큰걸음을 내짚은 조선인민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들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대하가 뜨겁게 흘렀다.

군중들은 사랑하는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열과 정을 다해 보살펴주시며 애국애민의 천만리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인민적수령의 고결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중앙미술전시회장과 각 도, 시, 군 사진전람회장들에도 한평생 초인간적인 정력과 의지로 조선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열기가 차넘쳤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탄생 81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각지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무대가 펼쳐졌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경축공연이 16일 삼지연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수도의 곳곳에서 야외공연이 진행되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무도회가 펼쳐져 명절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자강도, 강원도, 함경북도, 개성시를 비롯하여 각지의 예술인들이 펼친 경축공연들과 각 도소재지들에서 진행된 예술소조종합공연들도 명절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광명성절의 경축분위기를 더해주며 **김일성**경기장에서 남자축구경기가 있었다.

어머니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솟아난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을 비롯한 문화휴식터들에서는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의 급양봉사단위들은 다양한 명절봉사를 받는 사람들로 흥성이였다.

16일 저녁 수도의 청년학생들은 **김일성**광장에서 야회를 열고 명절의 밤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새 우표들을 발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1돐을 맞으며 사진전람회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와 중앙미술전시회, 평양시산업미술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탄생 81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진행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삼지연극장에서 경축공연이 진행되였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삼지연시에 눈얼음조각풍경이 펼쳐졌다.

제11차 광명성절료리기술경연이 진행되였다.

광명성절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2월의 명절을 맞는 수도의 거리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훈련 진행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훈련이 2월 18일 오후에 진행되였다.

미싸일총국이 지도한 훈련에는 대륙간탄도미싸일운용부대들중에서 발사경험이 풍부한 제1붉은기영웅중대가 동원되였다.

제1붉은기영웅중대는 2022년 11월 18일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을 발사한 구분대로서 전략적임무를 전담하는 구분대들중 가장 우수한 전투력을 지닌 화력중대이다.

훈련은 사전계획없이 2월 18일 새벽에 내려진 비상화력전투대기지시와 이날 오전 8시에 하달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서에 의하여 불의에 조직되였다.

발사훈련명령서에는 훈련에 미싸일총국 제1붉은기영웅중대를 동원하고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5》형을 리용하며 불의적인 기습발사훈련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 및 검증하는것과 함께 공화국핵무력의 전투준비태세를 각인시키고 국가핵억제력의 구성부분들의 정확한 가동성, 반응성, 믿음성, 효과성, 전투성에 대한 확신과 담보를 립증해보일데 대하여 밝혀져있었으며 **김정은**동지의 친필존함수표가 모셔져있었다.

영예로운 전투명령을 받아안은 제1붉은기영웅중대는 2월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5》형을 최대사거리체제로 고각발사하였다.

미싸일은 최대정점고도 5, 768. 5km까지 상승하여 거리 989km를 4, 015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으며 강평에서 《우》를 맞았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기동적이며 위력적인 반격준비태세를 갖춘 대륙간탄도미싸일부대들의 실전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반도지역에 조성된 군사적환경에 대비하여 전략적임무가 부과된 모든 미싸일부대들에 강화된 전투태세를 철저히 유지할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전략순항미싸일 발사훈련 진행

전략순항미싸일발사훈련이 2월 23일 새벽에 진행되였다.

발사훈련에는 조선인민군 동부지구 전략순항미싸일부대 해당 화력구분대가 동원되였으며 기타 구분대들은 실사격없이 갱도진지들에서 화력복무훈련을 진행하였다.

발사훈련에 동원된 구분대는 함경북도 김책시일대에서 조선동해로 4기의 전략순항미싸일 《화살-2》형을 발사하였다.

발사훈련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하는것과 함께 공화국핵억제력의 중요구성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싸일부대들의 신속대응태세를 검열판정하였다.

발사훈련은 자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하였다.

발사된 4기의 전략순항미싸일들은 조선동해에 설정된 2, 000km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비행궤도를 1만 208s～1만 224s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타격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발사훈련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다.

신의주방직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수많은 녀성근로자들이 혁신자의 자랑을 떨치였다.

3년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는 9명, 2년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는 31명이다.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창조해가는 공장의 녀성근로자들은 커다란 자부심에 넘쳐 3.8국제부녀절 113돐을 맞이하고있다.

녀성들의 일터

- 신의주방직공장에서 -

평안북도소재지에 자리잡고있는 신의주방직공장 종업원들은 대다수가 녀성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다.

기대들의 고르로운 동음이 울리는 생산현장들의 문화적인 로동조건과 환경은 그들에게 창조의 희열을 안겨주며 보다 큰 로력적성과를 담보하여준다.

아늑한 구내에 꾸려져있는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무럭무럭 자라는 그들의 자식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울려나와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준다.

하루의 로동을 마치고나면 문화후생시설이 그쯘히 갖추어진 방직원이며 규모있게 꾸려진 체육관 등이 어서오라 그들을 부른다.

특히 주체109(2020)년에 새로 일떠선 로동자합숙에서 행복에 겨운 노래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주체107(2018)년 6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로동자들의 생활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공장합숙생들이 당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마련해준 로동자합숙을 몹시 부러워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못지 않게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합숙터전도 잡아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동원시킬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렇게 건설된 합숙은 처녀로동자들의 더없이 정다운 보금자리로 되고있다.

문화선전실, 과학기술보급실, 도서실, 치료실 등이 있는 합숙의 1층은 처녀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이 진행되는 기본장소이다.

2층부터 7층까지는 호실들과 함께 미래의 가정주부들을 위한 료리실습장들이 꾸려져있다.

식사시간이면 실습장들은 제가 만든 음식들을 차려놓고 저마끔 청하는 처녀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한다.

그 웃음과 랑만을 안고 새로운 혁신을 다짐하며 매일 합숙문을 나서고 하루일을 넘쳐 수행한 긍지에 넘쳐 이곳으로 들어서는 그들이다.

그들과 함께 공장의 모든 녀성들이 일터마다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혁신자의 자랑을 떨쳐가고있다.

사진 방은심
글 김선경

POMHYANGGI COSMETICS

항상 젊은 모습으로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을 이루어주는 《봄향기》화장품입니다.

그 가운데는 자극성이 적고 영양성분들의 피부침투효과가 높은것으로 하여 로화를 방지할뿐 아니라 로화로 인하여 손상된 피부를 수복해주어 피부가 항상 탄력있고 생기있게 하여주는 로화방지영양물도 있습니다.

이 제품을 개발한 연구사들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로부터 주체108(2019)년 발명가금메달과 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랑만넘치는 인민야외빙상장

연건축면적: 6, 469㎡
빙　상　장: 1, 800㎡

수도 평양을 감돌아흐르는 대동강반을 따라 일떠선 수많은 문화정서생활기지들중에는 출렁이는 물결을 떠인듯 독특한 건축미를 갖춘 인민야외빙상장도 있다.

이곳은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며 3차례나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뜻한 손길아래 주체101(2012)년 11월에 준공된 대중체육 봉사기지이다.

사계절 운영되는 이곳에는 타원형의 빙상장(1, 800㎡)과 함께 스케트내주는 곳, 대기 및 휴계실, 의료실, 방송실 등이 있다.

스케트타는 법과 기교동작들을 배워주는 보급원들도 있어 스케트를 처음 타는 사람들도 짧은 기간에 지치기 기술과 요령을 익힐수 있다.

하여 언제나 수많은 시민들과 청년학생들이 찾아와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다.

더우기 겨울철이면 빙상장은 매일같이 만원을 이룬다.

보급원들은 온몸운동인 스케트타기를 정상적으로 하면 심장, 폐를 비롯한 장기들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겨울철에 스케트를 정상적으로 타게 되면 튼튼한 체력은 문제없다고 말하고있다.

지금까지 인민야외빙상장을 찾은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수는 연 백수십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사진 우정국
글 김선경

장광경 《눈사람놀이 재미나요》(1등)

광경이는 무척 꾸준하고 침착한 성격이다. 그는 이름난 만화영화 《다람이와 고슴도치》에서 나오는 대상들을 그리는것을 무척 좋아한다고 한다. 그로 하여 전국에 소문난 유치원의 실력은 또 한번 과시되였다.

신의주시 본부유치원 장광경

그림전시회에 비낀 어린이들의 재능

- 제8차 아시아어린이그림전시회에서 -

지난해 7월 중국 료녕성 대련시에서는 제8차 아시아어린이그림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상봉, 겨울의 꿈, 미래》의 주제로 진행된 전시회에는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의 17개 나라와 지역에서 보내온 200여점의 작품들이 출품되였다. 본사편집부는 조선의 일부 입상자들을 작품과 함께 소개한다.

평성시 은덕유치원 류예은

전시회에 내놓은 작품은 예은이가 왼손으로 그린것이다. 량손에 연필을 쥐고 동시에 꽃바구니를 그려내는 그를 직접 보고나면 그의 재능에 절로 감탄하게 된다.

승벽심이 센 그는 피아노연주도 잘하고 춤도 잘 춘다고 한다.

류예은 《친선》(1등)

신의주시 본부유치원 김기룡

获奖证书
Certificate of Award
二等奖
Second Prize
本奖项授予
金奇龙
参加第八届亚洲儿童绘画展活动
特发此证 以兹鼓励

기룡이는 두번째로 이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4살때부터 연필만 손에 들면 벽마다 그림을 그려놓아 도배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신의주화학섬유공장 로동자인 아버지는 한갖 장난으로 보았던 아들의 소질을 유치원에서 발견하고 자래워주고있다고 하였다.

김기룡 《꽃놀이 신나요》 (2등)

리주강 《꿈동산 찾아가요》 (2등)

주강이는 건축가, 바둑명수 지어는 활쏘기명수까지 되고싶다고 한다. 그가 그림을 배우면서부터 이전과는 달리 침착하고 쾌활해졌다고, 전국적인 소묘축전과 뛰여난 재능을 가진 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에서 우승한 것은 정영애교양원의 수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그의 부모들은 말하였다.

获奖证书
Certificate of Award
二等奖
Second Prize
本奖项授予
李主钢
参加第八届亚洲儿童绘画展活动
特发此证 以兹鼓励

창광유치원 리주강

평천구역 북성유치원 김강의

获奖证书
Certificate of Award
三等奖
本奖项授予
金强毅
参加第八届亚洲儿童绘画展活动
特发此证 以兹鼓励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군 해서 늘 그들의 《포위》 속에 있는 강의이다. 부모들은 음악공부를 시키려고 하였지만 차은하교양원이 그의 천성을 발견하고 계발시켰다. 나날이 발전하는 아들의 재능을 보며 부모들은 그가 훌륭한 미술가로 자라기를 바라고있다.

김강의 《누구것이 더 멋있나》 (3등)

장령성 《함께 모여 찰칵》 (3등)

평성이는 유치원에서 그림에 취미를 붙였다고 한다.

김영복교양원이 휴식시간마다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계발시킨 결과이다. 그의 할머니는 손자가 초기에는 그림그리기를 싫어하던것이 이제는 그림종이를 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获奖证书
Certificate of Award
三等奖
Third Prize
本奖项授予
张领成
参加第八届亚洲儿童绘画展活动
特发此证 以兹鼓励

중구역 외성유치원 장령성

4중태권도 세계선수권보유자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체육인들가운데는 인민체육인 김수련도 있다.

황해남도 벽성군의 한 로동자가정의 외동딸로 태여난 그는 중학시절까지 해주예술학원(현재)에서 무용을 배웠다.

그러다가 졸업을 얼마 앞두고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에 매력을 느끼게 되였다.

모두가 너무 늦었다, 무용을 계속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였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해주학생소년회관에서 태권도기초기술을 배운 이후 그는 황해남도태권도선수단에서 전문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얼마후부터 전도가 기대되는 선수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국내경기들에서 중량급선수인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준 그는 주체99(2010)년 제9차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70kg급 녀자개인맞서기경기와 단체틀, 단체맞서기, 단체특기경기에서 1등을 하여 4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제17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2011년)

제1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2013년)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2015년)

다음해 진행된 제17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75kg급 녀자개인맞서기경기에서 그는 또다시 1등을 하였다.

그는 그때부터 자기 몸무게급에서 련속 우승하였다.

그는 제1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와 제7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제8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총 14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이 나날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이악하게 훈련하면서 그는 180° 뛰여돌며차기와 뛰며2회주먹지르기와 같은 난도높은 기술을 자기의 특기기술로 완성하였다.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녀자개인맞서기경기에 출전한 그는 자기 몸무게급에서 맞다드는 적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또다시 1위를 쟁취하여 4중태권도세계선수권 보유자로 되였다.

그는 또한 주체106(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공화국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로 선정되였다.

주체110(2021)년부터 김수련은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과학연구소 연구사로 사업하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김선경

리명수폭포

폭포는 100만년전 백두산에서 분출한 현무암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리명수골짜기의 오른쪽 절벽에 비단필을 드리운듯 걸려있는데 폭포의 기본물줄기는 9개이며 이 물줄기들사이에 구슬처럼 흘러내리는 무수한 작은 폭포들이 있다.

기본물줄기들은 쏟아져내리다가 바위턱에 부딪쳐 물안개를 일으키며 구슬같은 물방울로 흩어져 내리거나 여러 줄기로 갈라져 내리며 그것이 다시 모여 물줄기를 이루기도 하면서 리명수 물동의 《인공호수》로 쏟아져 내린다.

겨울철에는 얼음폭포로 변하나 얼지 않는 물줄기가 있는가 하면 고드름사이로 흐르는 물도 있다.

특히 땅속에서 흘러나온 물이 찬 대기와 만나 생긴 안개가 주변의 나무들에 흰 서리꽃을 피워 이 일대를 서리꽃숲으로 변하게 한다.

여러가지 모양의 폭포를 축소하여 한곳에 모아놓은듯한 폭포는 물줄기들사이에 드러난 검은 바위, 폭포아래의 수정같이 맑은 호수, 주변의 나무숲들이 서로 잘 어울려 특이한 경치를 이루고있으며 철따라 색다른 경치를 보여준다.

www.rodong.rep.kp www.kcna.kp www.vok.rep.kp www.naenara.com.kp www.minzu.rep.kp www.youth.rep.kp www.korean-books.com.kp www.pyongyang-times.com.kp www.mfa.gov.kp www.kftrade.com.kp www.kiyctc.com.kp www.korart.sca.kp www.mirae.aca.kp www.korfilm.com.kp www.cooks.org.kp www.friend.com.kp
www.korelcfund.org.kp www.tourismdprk.gov.kp www.ma.gov.kp www.sdprk.org.kp www.fia.law.kp www.manmulsang.com.kp www.koredufund.org.kp www.korstamp.com.kp www.kass.org.kp www.mediaryu-gyong.com.kp www.gpsh.edu.kp www.ryongnam-san.edu.kp www.kut.edu.kp www.ryomyong.edu.kp www.knic.com.kp

ㄱ-23088002108

낸 곳: © 조선화보사 2023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